

#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와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우리말 번역 제언

정일승\*

## 1. 들어가는 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여호와와 영이 빈번히 임했던 시대이다. 사사기 본문에는 여호와와 영이 7번 언급되는데, 여호와와 영이 직접적으로 임했던 사사로는 옷니엘(삿 3:10), 기드온(삿 6:34), 입다(삿 11:29), 삼손(삿 13:25; 14:6, 19; 15:14)이 있다. 여호와와 영의 임재는 이들에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능력을 부여한다. 다른 사사들에게도 여호와와 영의 임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사기 본문이 언급하지 않지만,<sup>1)</sup> 4명의 사사들에게 특별히 여호와와 영이 임하는 사건은 세밀하게 묘사된다.

여호와와 영은 옷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와 영의 임재는 흥미롭게도  $\text{הַיְהוָה}$ ,  $\text{מַלְאָךְ}$ ,  $\text{הַלֵּל}$ 와 같은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된다. 여호와와 영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고, 그 영이 임하는 모습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sup>2)</sup> 그렇다면, 왜 여호와와 영이 이 사사들에게 임했을 때 다양한 히브리어 동사로 묘사되었으며, 그로 인한 번역 및 해석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어성경은 사사들마다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는 여호와와 영의 임재를 번역에서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한글성경의 번역은 히브리어 단어의 미묘한 어감 차이와 내러티브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건신대학원대학교 조교수. ischung74@gmail.com.

- 1) 마틴(Lee R. Martin)은 히브리 성경(Hebrew Bible)에서 여호와와 영의 능력주심이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므로, 모든 사사가 여호와와 영에 의해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Lee R. Martin, “Power to Save!?: The Role of the Spirit of the Lord in the Book of Judges”,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16 (2008), 32 참조. 그러나, 제사장과 같은 제도적인 종교적 리더십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여호와와 영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다.
- 2) 본 논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신약성경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증언한다(막 1:10; 마 3:16; 눅 3:22).

해석상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번역을 재고할 필요가 제기된다.

번역은 원어(source language)에 충실한 번역과 번역어(target language)에 충실한 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 원어에 충실한 번역은 다소 어색하더라도 원문의 독특한 구조와 표현을 살려주는 접근방식이며, 번역어에 충실한 번역은 번역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옮기려는 태도이다. 직역과 의역의 선택 문제는 번역가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될 만큼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직역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번역자도 있고, 의역이 옳다고 생각하는 번역자도 있지만, 번역하는 글의 성격과 목적, 그 대상에 따라 번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성경 번역의 경우는 신앙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원문에 좀 더 가깝고 충실한 번역을 지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원문에 충실하되, 한국어로서도 자연스러운 번역을 지향해야 한다. 성경 번역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원문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 구절마다 다른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면 그 번역은 정확성을 잃게 된다. 가능한 한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는 같은 우리말 단어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면서, 본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해를 통해 원문의 단어를 더 정확한 표현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sup>3)</sup>

강사문은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이란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공인역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평가한 바 있다. 대표적인 한글 번역성경에는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개역』은 직역에 충실한 훌륭한 역본이지만 현대인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sup>4)</sup> 강사문은 『개역』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역 개정』이 기획되었지만 여전히 『개역』의 오역과 혼란을 주는 번역을 답습한 구절이 발견된다고 평가하였다.<sup>5)</sup>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출판한 『공동』은 문자역이나 형식일치의 번역보다는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의 원칙에 따라 번역을 시도하였으나 때로는 과도한 의역에 치중한 맹점도 있다. 『표준』은 20-30대를 대상으로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3) 강소라는 「성경원문연구」에 기고한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구약 번역 관련”에서 ‘원어의 원래 의미대로 더 정확하게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소라,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구약 번역 관련”, 「성경원문연구」 31 (2012), 86.

4) 강사문,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69.

5) Ibid., 71.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개역』의 직역 및 『공동』의 내용 동등성의 의역을 따르는 특징이 동시에 나타난다.<sup>6)</sup>

각 공인역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른 번역의 방향 및 정책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기존 번역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언제나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번역된 공인역의 장점을 중심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웃니엘, 기드온, 입다와 삼손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하는 본문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와 사사기 내러티브 전개상 좀 더 적절한 번역 및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공인역 전통을 존중하고 참고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번역을 보완하고 내러티브 해석상의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 원문에 없는 표현을 덧붙이는 번역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원문의 단어는 생략하지 않고 빠짐없이 번역한다.<sup>7)</sup> 둘째,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를 같은 한국어 단어로 번역한 일부 구절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번역할 것이다.<sup>8)</sup>

## 2. 웃니엘: 여호와와 영이 오시다

그동안 ‘여호와와 영’과 관련된 국내 구약학계의 연구는 여호와와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רוּחַ)’의 분포 및 루아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한사무엘은 사무엘서에 나타난 ‘루아흐 엘로힘(רוּחַ אֱלֹהִים)’과 ‘루아흐 야웨(רוּחַ יְהוָה)’의 신명 교차현상을 다윗 등극과 관련하여 다윗 추종자들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해석학적 장치로 제안하였다.<sup>9)</sup> 반면,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임한 영은 ‘하나님의 영(רוּחַ אֱלֹהִים)’이 아니라 ‘여호와와 영(רוּחַ יְהוָה)’으로 표현된다. 이는 사사기 자체가 15회 언급된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175회나 사용된

6) 또한, 『공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를 사용한 것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 번역을 사용하지 않았던 반면, 『표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하였다. Ibid., 69-70.

7) 강소라,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84-85.

8) 강소라,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86; 강사문,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 74-75.

9) 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야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61 (2016), 137-166. 또한, 차준희는 루아흐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창조의 영’과 관련된 본문인 창 1:2; 시 33:6; 104:29-30; 사 32:15를 분석하였다.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55 (2015), 185-211.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인 ‘여호와’를 더 선호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sup>10)</sup>

웃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첫 번째 사사이다. 웃니엘 내러티브는 5 구절로 이루어진 짧고 간결한 형태의 이야기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다.<sup>11)</sup> 사사기 2:11-19의 문학적 구조처럼, 이러한 전형적 구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행동이 여호와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자에게 넘기시며 그들을 징계한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를 세우신다. 그 구원자가 압제자를 물리치고, 땅은 일정 기간 동안 안식을 누린다.<sup>12)</sup>

이와 같이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문학적 구조를 따라 웃니엘 내러티브는 서술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한다(삿 3: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을 구원자로 세운다(삿 3:9). 그 이후에 마치 공식처럼 여호와의 영이 웃니엘에게 오고(삿 3:10), 여호와의 영은 웃니엘에게 사사로서의 권위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사로서의 능력을 부여한다.

여호와의 영은 웃니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웃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עלֵי יְהוָה이다.

וַתְּהִי עָלָיו רוּחַ יְהוָה

『개역개정』: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표준』: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공동』: 야훼의 영이 그에게 내리자

번역 제안: 여호와의 영이 그의(웃니엘) 위에 오셨고(삿 3:10)<sup>13)</sup>

10) Lee R. Martin, “Power to Save!”, 27-28.

11) J. Clinton McCann,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41.

12) 웃니엘 내러티브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웃니엘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문학적 구조를 따른다. 많은 주석에서 도표를 통해 문학적 구조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114 참조.

13) 본 논고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성경 번역은 모두 필자의 사역임.

위의 번역 예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된 **על הַיְהוָה**을 『공동』과 『표준』은 ‘~에게 내리다’로 번역하며, 『개역』과 『개역개정』은 ‘~에게 임하다’로 번역하면서 전치사 **על**의 번역이 생략되었다. 또한 『개역』은 ‘영’이라는 표현 대신 ‘신’으로 번역하는데, 『개역』의 번역 전통을 따른 김의원의 사사기 주석의 경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개역』의 표현을 반영하고 있다.<sup>14)</sup>

영어성경의 경우는 다수의 번역본이 **על הַיְהוָה**의 히브리어 단어를 생략하지 않고 ‘~ 위에 왔다(came upon, RSV, JPS, ASV, NAS, KJV, NIV)’로 번역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에게 있었다(was on [upon], ESV, NJB)’로 번역하면서 전치사 **על**을 on 또는 upon으로 옮겼다.

RSV: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Jdg 3:10)

ESV: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him (Jdg 3:10)

NJB: The Spirit of Yahweh was on him (Jdg 3:10)

또는 『공동』, 『표준』과 같이 ‘~위에 내렸다(descended upon, TNK)’로 옮기거나, NET 번역의 경우 ‘권능을 부여했다(empowered)’로 의역하였다.

TNK: The Spirit of the LORD descended upon him (Jdg 3:10)

NET: The LORD’s spirit empowered him (Jdg 3:10)

독일어 및 프랑스어 성경 번역도 대체로 **על הַיְהוָה**을 히브리어 단어를 생략하지 않고 ‘~위에 왔다’ 또는 ‘~위에 있었다’로 번역한다.

ELB: Und der Geist des HERRN kam über ihn (Jdg 3:10)

ZUR: Und der Geist des HERRN war auf ihm (Jdg 3:10)

FBJ: L'esprit de Yahvé fut sur lui (Jdg 3:10)

반면, 대다수의 한글성경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전치사 **על**(‘~위에’)의 번역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원문의 단어는 생략하지 않고 빠짐없이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15)</sup> 전치사 **על**의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웃니엘 **위에 왔다**”로 옮겨 볼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여호와의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숙고해 볼 수

14)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룯기』, 성서주석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75.

15) 강소라,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언”, 84.

있다. 우선 ‘~위에 왔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영이 웃니엘의 외부로부터 왔음을 시사한다. 현상적으로 내적 임재보다는 외부로부터 웃니엘에게 임하는 외부적인 강림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רוח יהוה**의 주어로 사용된 문장구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의원은 사사기 저자가 여호와의 영이 주도하여 웃니엘을 구원자로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고 제시한다.<sup>16)</sup> 마틴(Lee R. Martin) 또한 웃니엘이 여호와의 영을 수여받은 수동적인 객체로 표현되었으며, 본문은 여호와의 영을 주어로 배치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여호와의 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sup>17)</sup> 즉, 웃니엘이 스스로 영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사사로서 웃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 구원하는 행위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웃니엘은 용맹스러운 전사였으나(수 15:13-19; 사 1:11-15)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8년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결과, 웃니엘은 전쟁에 나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땅은 40년 동안 안식하게 된다(사 3:11). 웃니엘의 경우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거침없이 군사적인 승리로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볼링(Robert G. Boling), 블록(Daniel I. Block), 해밀턴(Victor P. Hamilton) 등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웃니엘은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사사에 속한다.<sup>18)</sup> 본래 그나스 족이었으나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 지파의 영웅이었던 갈렘의 조카 겸 사위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기랏 세벨을 점령한 경험이 있었던 전쟁 영웅이었다(수 15:16-17). 그러나, 사사기의 웃니엘 내러티브는 전형적인 사사인 웃니엘의 과거 경험, 결혼, 유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웃니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영의 임재 또한 간결하게 여호와의 영의 임재에 따른 결과만을 기록하였다.<sup>19)</sup>

16)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룯기』, 176.

17)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룯기』, 176; Lee R. Martin, “Power to Save!?”, 29.

18) Robert G. Boling, *Judges*, Anchor Bible 6A (New York: Doubleday, 1974), 81; Daniel I. Block, *Judges, Rut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C 6 (Nashville: B & H Publishing, 1999), 154;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112; 김지찬, 『엔 살롬 교향곡(상)』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74;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 (서울: 이엘, 2010), 123.

19) 슈나이더(Tammi J. Schneider)는 그 이유가 ‘원형적인 사사로서 구조(the structure of a model judge)’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Tammi J. Schneider,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39 참조.

### 3. 기드온: 여호와의 영이 옷을 입히시다

웃니엘과 달리 기드온은 지도자로서의 경험이나 이전에 군사를 이끌어 본 경험이 없다. 기드온은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부르심을 받고도(삿 6:14)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며 완고하게 저항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라는 부르심을 받고도 모세가 처음에 반대했던 모습과 유사하다.<sup>20)</sup> 그러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위기 상황이 닥쳐오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한다(삿 6:34). 처음엔 여호와의 영이 임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기드온은 아비에셀과 므낫세, 아셀, 스블론, 납달리 지파를 불러 모았고,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루기 위해 출정한다(삿 6:35).

기드온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שָׁכַח**이다.

וַיָּרוּחַ יְהוָה לְבָשָׁה אֶת־גִּדְדֹן

『개역개정』: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표준』: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공동』: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번역 제언: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고(삿 6:34)

주요 공인역을 살펴보면, 『개역개정』은 사사기 6:34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로, 『표준』은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로, 『공동』은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임하시다’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동사 **שָׁכַח**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모습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전제한 번역이다. ‘사로잡다’라는 번역 또한 동사 **שָׁכַח**의 기본적인 의미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영어성경의 번역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주요 영역본에서 ‘~위에 임했다(came [up]on, NIV, NAS, ASV)’, ‘감쌌다/덮었다(enveloped, TNK)’, ‘장악

20) 모세의 소명기사(call narrative)와 기드온의 소명기사의 내용상 유사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Norman Habel,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AW* 77:3 (1965), 297-305 참조.

했다/지배했다(took control of, NET)', '사로잡았다(took possession of, RSV, NRS, NLT)',<sup>21)</sup> '옷 입혔다(clothed, ESV, NJB, JPS)' 등의 표현으로 옮기고 있다.

NAS: So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Gideon (Jdg 6:34)

TNK: The spirit of the LORD enveloped Gideon (Jdg 6:34)

ESV: But the Spirit of the LORD clothed Gideon (Jdg 6:34)

『표준』과 마찬가지로 RSV, NRS, NLT는 '사로잡다(took possession of)'로, NET의 경우는 '장악했다/지배했다(took control of)'로 번역하는데, 아마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미친 영향력을 감안한 번역이겠지만, 이러한 번역은 **כִּלְיוֹתָי**의 일차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벗어나 여호와의 영의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번역으로 판단된다.<sup>22)</sup>

RSV: But the Spirit of the LORD took possession of Gideon (Jdg 6:34)

NET: The LORD's spirit took control of Gideon (Jdg 6:34)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고 번역하면 마치 기드온이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이끄심대로 움직일 듯한 인상을 독자에게 준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러티브 전개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기드온의 의지를 강하게 하거나 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부족했던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삿 6:36-40).

**כִּלְיוֹתָי**는 기드온 내러티브 전개상 ‘옷을 입혔다(clothed, ESV, NJB, JPS)’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sup>23)</sup> 국내 학자들의 주석에서도 이와 같은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김의원은 『개역』의 번역을 반영하되, “여호와의 영이 덧입혀지니”라는 직역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처럼) 입혀졌다”는 번역을 제시하면서,<sup>24)</sup> 기드온이 인

21) 맥켄(J. Clinton McCann)의 경우 ‘took possession of’로 해석한다. J. Clinton McCann, *Judges*, 65.

22) Lee R. Martin, “Power to Save!?”, 35.

23) Robert G. Boling, *Judges*, 138;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4, 517; *HALOT* 2, 519; 빌헬름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랍어 사전』, 이정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380; *BDB*, 173. *BDB*는 ‘clothe’의 의미를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take possession of’의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다.

간적으로 준비되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옷처럼 입혀지지 않으면 사사로서 준비된 자가 아니라고 해석한다.<sup>25)</sup> 김진섭도 ‘옷 입히시다’는 번역을 통해 원문의 의미를 적절히 반영하였으며,<sup>26)</sup> 김윤희는 ‘옷을 입히시다’는 강도 높은 표현은 전쟁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며, 기드온은 단지 대리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27)</sup> 불링의 Anchor Bible 주석도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다(Yahweh’s spirit clothed Gideon)”로 번역한다.<sup>28)</sup>

이렇게 번역할 경우 히브리어 동사  $\text{לָבַשׁ}$ 의 의미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드온 내러티브의 전개상 ‘옷 입힘’이라는 모티브가 지닌 역할이 부각된다.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번역하면, 구약성경에서 ‘옷 입힘’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에 반영할 수 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도록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된 자들은 벌거벗게 되고 몸을 노출하는 수치를 당한다(대하 28:15).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으므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여 벌거벗게 되는 수치를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여호와와 영이 옷을 입히는 것은 전쟁에서 몸이 다치지 않도록 강력한 갑옷을 입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 외에도, 구약성경에서 옷은 예언자(왕상 11:29; 19:19; 왕하 1:7 이하), 제사장(출 28:31-43), 왕(왕상 22:10, 30)과 같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드온의 ‘옷 입음’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의 권위를 보여준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옷이 닳지 않았던 것처럼(신 8:4; 29:5[4]; 느 9:21), 구약성경 안에서 ‘옷 입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한다.<sup>29)</sup>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채색옷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옷은 또한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sup>30)</sup> 이처럼, 여호와와 영으로 옷을 입는 기드온에게 구원과 사명의 의복을 입은 자로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진다.

구약성경에서 통상 동사  $\text{לָבַשׁ}$ 는 옷을 입는 사람을 주어로 취한다. 그러나

24)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룿기』, 175, 341.

25) Ibid., 341.

26)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사사기, 룿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69.

27) 김윤희, “대(大)사사 기드온은 과연 영웅인가(삿 6-8장)”,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사사기, 룿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76.

28) Robert G. Boling, *Judges*, 138.

29) *TDOT* 7, 463.

30) 다윗과 요나단의 친밀한 관계도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 겹옷과 군복 등을 주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다(삼상 18:1-5 참조).

웃니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경우도 또 다시 여호와와 영이 문장 구조상 주어로 사용되면서, 옷을 입히는 행위의 주체로서 여호와와 영의 역할이 강조된다.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드온을 옷 입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웃니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영의 옷 입힘은 기드온의 외부로부터 와서 옷처럼 몸을 감싸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웃니엘의 경우도, 기드온의 경우도, 그들에게 입힌 여호와와 영의 모습은 여호와와 영의 내적인 임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구약에서 여호와와 영이 입히는 현상을 살펴보면, 여호와와 영은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고, 단순히 ‘안에’ 있기도 하다. 에스겔의 경우는 영이 ‘들어갔다’(겔 2:2). 다니엘의 경우나 요셉의 경우는 영은 그들의 ‘안에’ 있었다(창 41:38; 단 4:8, 9, 18; 5:11). 여호수아와 미가,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경우는 여호와와 영이 그들을 채워서 충만하게 하였다(신 34:9; 출 28:3; 31:3; 35:31; 미 3:8).<sup>31)</sup> 웃니엘과 기드온의 경우 여호와와 영이 입히는 모습은 이들의 내면보다는 외부적인 강림으로 원문에서 묘사된다.

이러한 ‘옷 입힘’의 모티브는 기드온의 전쟁 이후의 행보를 묘사하는 내러티브에서는 이전과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긴 했지만(삿 8:22-23),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걸어 들여 1,700 세겔이나 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든다. 금으로 만든 에봇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삿 8:27, 33),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라미가 된다(삿 8:27, 참조 삿 2:3).

이처럼 기드온 내러티브에서 여호와와 영으로 옷을 입었던 기드온과 금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모습이 대조가 된다. 기드온은 더 이상 여호와와 영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며 여호와께서 세우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보다는 제도적 종교지도자의 표식이다.<sup>32)</sup> 여호와와 영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기드온이 카리스마적인 사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얻은 그의 개인적인 명성, 물질적 번영을 상징하며, 왕과 제사장 같은 권력을 탐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준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기드온의 말년의 행

31) Lee R. Martin, “Power to Save!”, 35.

32) 주석가들은 금 에봇을 만든 기드온과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비교해서 주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맥켄은 기드온이 아론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본보기처럼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J. Clinton McCann, *Judges*, 70; Ba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2), 264 참조.

보는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을 의미하는 것처럼(삿 8:31), 그가 취했던 수많은 재물과 아내들을 통해서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 왕이나 다름없다.

#### 4. 입다: 여호와와 영이 오시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교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삿 10:6-7).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울부짖음으로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관계가 끝났음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거절하신다(삿 10:10-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이끌 지휘관으로 입다를 선택한다. 입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이러니하다. 입다는 힘센 용사로, 창녀의 아들로 소개된다(삿 11:1).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sup>33)</sup> 입다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무법자가 되었다(삿 11:3).

비록 입다는 여호와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사가 되었지만, 여호와와 영이 입다 위에 왔다는 언급(삿 11:29)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실 것이란 기대를 독자에게 불러일으킨다. 또한, 입다가 여호와와 영을 받는 과정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모범이며 원형인 웃니엘이 여호와와 영을 받을 때와 동일한 표현인 על יהוה로 묘사된다.

וַתְּהִי עַל־יְהוָה רוּחַ יְהוָה

- 『개역개정』: 이에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 『표준』: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 『공동』: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번역 제안: 여호와와 영이 입다 위에 오셨고(삿 11:29)

33) J. Cheryl Exum, “The Tragic Vision and Biblical Narrative: The Case of Jephthah”, J. Cheryl Exum, ed., *Signs and Wonders: Biblical Texts in Literary Focus* (Atlanta: Scholars Press, 1989), 64; Ba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310.

한글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 옷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번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על הַיְהוָה를 『공동』과 『표준』은 ‘~에게 내리다’로, 『개역』과 『개역개정』은 ‘~에게 임하다’로 번역한다.

영어성경의 경우 주로 ‘~ 위에 왔다(came [up]on, RSV, JPS, ASV, NAS, KJV, NIV)’ 또는 ‘~에게 있었다(was on [upon], ESV, NJB)’로 번역한다. NET는 옷니엘에게 왔던 여호와의 영을 번역할 때와 동일하게 ‘권능을 부여했다(empowered)’로 의역하고 있다.

RSV: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ephthah (Jdg 11:29)

ESV: Then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Jephthah (Jdg 11:29)

NET: The LORD’s spirit empowered Jephthah (Jdg 11:29)

옷니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또한 ‘~위에 왔다’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자 중에서 김의원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왔다”라는 번역을 제시한다.<sup>34)</sup> 반면에 김진섭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심’의 현상을 간략히 언급하지만, 전치사 הַיְהוָה의 의미를 비중 있게 다루진 않는다.<sup>35)</sup>

옷니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오셨기 때문에, 독자는 옷니엘처럼 입다 역시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옷니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왔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보이는 입다의 반응은 오히려 기드온과 더 유사하다. 여호와의 영이 온 이후에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서원을 한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삿 11:31).”

블록은 입다가 짐승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염두에 두고 서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원의 내용 자체는 인신 제사(human sacrifice)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sup>36)</sup> 기드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확증

34)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룯기』, 461;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167-168.

35)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167.

36) Daniel I. Block, *Judges, Ruth*, 366-367.

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되고, 결국엔 자신의 딸을 서원한 대로 인신제사로 바치게 되는(삿 11:39)<sup>37)</sup> 비극적인 인물이 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외적 모습만 옷니엘과 같을 뿐,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입다는 기드온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기드온은 금으로 예봇을 만들었고, 입다는 그의 딸을 잘못된 서원의 희생양으로 삼아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인다.

기드온과 입다의 사례를 통해, 여호와의 영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가져오는 결과는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로 곧바로 전쟁에 나가 승리한 옷니엘과 달리, 기드온과 입다는 주저했고, 확증을 구했으며, 결과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사의 삶과는 동떨어진 불신앙의 말로를 보여준다.

## 5. 삼손: 여호와의 영이 흔드시고 돌진하시다

삼손 내러티브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삿 13: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데,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행동조차 하지 않을 만큼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공존조차 자연스럽게 된다.

삼손은 출생 전부터 사사로서 준비된 유일한 인물이다. 삼손 내러티브는 영웅에게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건인 수태고지 사건으로 시작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미리 예언하며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삿 13:3-5).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고 언급된 인물로 옷니엘을 능가할 만한 최적의 사사로 독자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킨다(삿 13:24).<sup>39)</sup>

37) 유대인 주석가인 킴키(David Kimchi)로부터 시작하여 일부 유대교 및 기독교의 주석가들은 입다가 딸을 평생 결혼시키지 않고 처녀로 지내게 했다고 해석했으나, “서원한 대로 딸(그녀)에게 행했다”는 삿 11:39의 표현은 이런 해석을 지지하기 어렵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사는 David Marcus,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ch Press, 1986), 8-9 참조.

38) 올슨(Dennis T. Olson)은 좀 더 부정적인 관점에서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남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Dennis T. Olson, “The Book of Judges”, Leander E. Keck, 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Numbers-Samuel*, Volume 2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768.

39) E. John Hamlin, *At Risk in the Promised Lan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udges*,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0), 132.

삼손의 생애 초기는 매우 간략하게 설명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삿 13:24).”<sup>40)</sup> 곧이어 삼손과 ‘여호와와 영’의 첫 번째 만남이 이전 사사들에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히브리어 동사 **נָעַם**으로 묘사된다.

여호와와 영과 삼손과의 대면을 묘사한 구절(삿 13:25)에서 동사 **נָעַם**에 대한 번역은 매우 상이하다. 사사기 13:25의 주요 한글 번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וַתְּחַל רוח יהוה לְנַעֲמוֹ בְּמַחֲנֵה דָן בֵּין צְרָעָה וּבֵין אֲשֵׁתָאֵל

『개역』: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개역개정』: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표준』: 그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공동』: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단의 진지에 있을 때 야훼의 영이 **처음 그에게 내렸다**

『현대인의 성경』: 그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

번역 제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영이 그를 **흔들기 시작하셨다**.(삿 13:25)

대체로 한글성경 번역의 경우는 히브리어 동사 **נָעַם**이 지닌 일차적인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칠십인역(LXX)도 *συνεκπορεύεσθαι*(‘~와 동행하는’)로 번역하는데,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어성경 번역도 ‘흔들기(휘젓기) 시작했다(began to stir, RSV, NRS, NAS, ESV, NIV, NLT)’, 또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began to move [upon], JPS, KJV, NKJ)’로 번역한다. NET는 ‘통제하기 시작했다(began to control)’로 번역하여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였다.

RSV: And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stir him (Jdg 13:25)

40) 삼손은 사무엘(삼상 2:21; 3:19)과 예수님(눅 2:40, 52)처럼 축복 가운데 성장했다.

JPS :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move him (Jdg 13:25)

NET: The LORD’s spirit began to control him (Jdg 13:25)

히브리어 동사 **נָעַף**은 ‘(떠)밀다’, ‘찌르다’, ‘몰다’, ‘격려하다’, ‘휘젓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sup>41)</sup> 학자들의 번역도 다양하다. 알터(Robert Alter)는 **נָעַף**을 ‘drive’로 번역하며, 레빈(Baruch Levine)은 같은 동사를 ‘pulsate in’으로 번역할 것을 제시한다.<sup>42)</sup> 볼링은 ‘arouse’로 번역한다.<sup>43)</sup> 그러나, 구약에서 **נָעַף**은 종종 ‘루아호(רוּחַ)’와 함께 쓰이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심란하고 번민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꾸 이 후에 그들의 마음(영, רוּחַ)이 번민하는데, ‘번민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נָעַף**이다(창 41:8; 단 2:3, cf. 단 2:1). 마음속에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여호와의 영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삼손을 흔들어 놓으며 문제를 일으킨다. 요컨대, 동사 **נָעַף**은 이어지는 삼손의 생애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건을 암시하는 불길한 전조이다.<sup>44)</sup> 따라서, 이 부분을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흔들기 시작하셨다**(삿 13:25)”라고 번역하면, 이후의 삼손 내러티브에서 전개되는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과 조화롭게 읽힌다. 김진섭은 사사기 13:25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영이 그를 진동시키기 시작하였다”라는 번역을 제시한다.<sup>45)</sup> 그러나, 사람을 ‘진동시키다’라는 표현보다는 ‘흔들다’라는 표현이 어법상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블레셋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조차 없이 블레셋과 공존했던 삼손의 시대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흔들어 놓아서 블레셋과의 공존 관계를 흔들어 놓아야 할 상황이었다.<sup>46)</sup> 사사기의 내레이터도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 덤나로 향하는 삼손의 모습이 블레셋과의 충돌을 계기로 그들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였음을 밝힌다(삿 14:4).

삼손은 사사로서 가장 당혹스러운 인물이다.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삼

41) 빌헬름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654. HALOT은 ‘stir’와 ‘trouble’로, BDB는 ‘thrust’와 ‘impel’로 정의한다. cf. HALOT 2, 952; BDB, 821; NIDOTTE 3, 649.

42) Robert Alter, “Samson without Folklore”, Susan Niditch, ed., *Text and Tradition: The Hebrew Bible and Folklore* (Atlanta: Scholars Press, 1990), 49; Baruch Levine, *Numbers 1-20*,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3), 340.

43) Robert G. Boling, *Judges*, 225.

44) Lee R. Martin, “Power to Save!?”, 43-44.

45)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171.

46) Ibid., 172.

손이지만, 삼손이 보여주는 행보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다.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에 나서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거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sup>47)</sup>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호와의 영은 거듭해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초했던 목숨을 잃을 뻔한 곤경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뿐이다.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삼손으로 하여금 사자를 찢어 죽이고(삿 14:6), 아스글론에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삿 14:19), 그리고 레히에서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한다(삿 14:14-16).

여호와의 영과 삼손의 첫 번째 대면 이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올 때마다 처음보다 더 강한 어감을 가진  $\text{על הַלָּח}$ 이 삼손의 생애에 관여하는 영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사용된다. JPS, RSV, KJV, NAS, NKJ와 같은 영역본은 이 구절을 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강하게 임했다.(the Spirit of Yahweh came mightily upon.)”로 번역한다.

JPS: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mightily upon him (Jdg 14:6; cf. Jdg 14:19; 15:14)

RSV: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mightily upon him (Jdg 14:6; cf. Jdg 14:19; 15:14)

이와 유사하게 이 구절은 ‘힘차게 ~위에 왔다(came powerfully upon, NIV)’, ‘사로잡았다(seized, NJB)’, ‘권능 가운데 임했다(came on [ ] in power, TNIV)’, 또는 ‘돌진하다(rushed on, NRS)’로 번역되었다.

NIV: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him (Jdg 14:6; cf. Jdg 14:19; 15:14)

NJB: The Spirit of Yahweh seized on him (Jdg 14:6; cf. Jdg 14:19)

NRS: The spirit of the LORD rushed on him (Jdg 14:6; cf. Jdg 14:19; 15:14)

영어성경 번역 중에서 히브리어 동사  $\text{על הַלָּח}$ 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은 ‘rush’로 번역한 NRS로 생각된다. 웹(Barry G. Webb)도 그의 주석에서  $\text{על הַלָּח}$ 을 ‘rush upon’으로 번역한다.<sup>48)</sup> 학자들은 히브리어 동사  $\text{על הַלָּח}$ 를 다양

47) Lee R. Martin, “Power to Save!”, 46;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 308.

한 표현으로 번역하는데, 종종 **נָחַץ**의 강한 어감을 살리지 못하거나, 일관성 없이 번역한 경우가 발견된다. 볼링은 ‘empowered’(삿 14:6; 15:14)와 ‘suddenly empowered’(삿 14:19)로 번역했고,<sup>49)</sup> 블록은 ‘came upon him in power’(삿 14:6, 19; 15:14)로 번역했다.<sup>50)</sup> ‘강하게 임했다(came mightly upon)’는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돌진하였다’라는 번역이 스스로 자초한 여러 곤경과 좌충우돌 부딪치는 삼손의 모습과 어울린다.

영어성경의 번역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대체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편이다. 칠십인역(LXX)에서도 ἤλατο(‘그에게 뛰어 올랐다’)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고 있고, 독일어 번역본 중에서 ZUR은 동사 **נָחַץ**를 ‘관통하다’라는 다소 강한 어감을 지닌 표현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ELB와 NLB의 경우는 ‘오다’라는 의미로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ZUR: Da durchdrang ihn der Geist des HERRN (Jdg 14:6; cf. Jdg 14:19; 15:14)

ELB: Da kam der Geist des HERRN über ihn (Jdg 14:6; cf. Jdg 14:19; 15:14)

NLB: Und der Geist des HERRN geriet über ihn (Jdg 14:6; cf. Jdg 14:19; 15:14)

반면, 한글성경의 번역은 세 차례(삿 14:6, 19; 15:14)에 걸쳐 삼손에게 부딪친 여호와의 영의 모습을 묘사한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נָחַץ**를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았다.

וְהַצִּילָהּ אֱלֹהֵי רוּחַ יְהוָה

『개역개정』: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표준』: 그 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려덮었으므로**

『공동』: 그 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리덮쳐**

번역 제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돌진하니(삿 14:6)

וְהַצִּילָהּ אֱלֹהֵי רוּחַ יְהוָה

48) Ba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363-364, 381.

49) Robert G. Boling, *Judges*, 227-228, 237.

50) Daniel I. Block, *Judges, Ruth*, 427, 430, 444.

『개역개정』: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표준』: 그 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공동』: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번역 제안: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돌진하니(삿 14:19)

וַתִּצְלַח עָלָיו רוּחַ יְהוָה

『개역개정』: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표준』: 그 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공동』: 야훼의 영이 **그를 덮쳤다**.

번역 제안: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돌진하니(삿 15:14)

위의 예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개역』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נָצַח**를 ‘강하게 임하니’(삿 14:6)와 ‘갑자기 임하시매’(삿 14:19; 15:14)로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은 『개역개정』에서도 전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었다.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능한 한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는 같은 한국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51)</sup> 뿐만 아니라, 『개역』, 『개역개정』의 번역은 **נָצַח**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어감을 약화시켰다.

『공동』과 『표준』도 번역의 일관성 문제가 발견된다. 『공동』은 **נָצַח**를 ‘내리 덮쳤다’(14:6), ‘사로잡혔다’(삿 14:19), ‘덮쳤다’(삿 15:14)로 번역하고 있고, 『표준』은 ‘세차게 내리 덮쳤다’(삿 14:6, 19)와 ‘세차게 내렸다’(삿 15:14)로 번역하였다. 한글성경에서는 『표준』이 **נָצַח**의 강한 어감을 ‘세차게’라는 표현으로 일부 반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구절에서의 일관성 있는 번역과 함께 히브리어 동사 **נָצַח**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נָצַח**는 ‘쫓개다’, ‘(뺨)뺨고 들어가다’, ‘밀고 들어가다’, ‘돌진(쇄도)하다’, 또는 ‘성공하다’, ‘번영[번창/번성]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sup>52)</sup> 김의원은 히브리어 어순대로 번역했을 때 “여호와와 영이 삼손 위에 (강압적으로) 강하게 내리다”란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53)</sup> 김진섭은 **נָצַח**의 강한 어감을 살려 ‘~을 관

51) 강소라,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90.  
 52) 빌헬름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684. HALOT은 ‘succeed’로, BDB는 ‘rush’로 정의한다. HALOT 2, 1026; BDB, 852.  
 53)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룻기』, 507, 525, 535.

통하다’라고 번역한다.<sup>54)</sup>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할 때는 문맥상 ‘돌진/쇄도하다(rush)’라는 의미에 가깝다. 마틴과 같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 동사는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의 입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어떤 용어들보다 강한 힘으로 가득한 상태를 암시한다.<sup>55)</sup>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이 마치 쇄도해서 돌진하듯이 강하게 입하는 상태이다.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가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 마치 황홀경에 취한 것처럼 예언을 했을 때의 경험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삼상 10:10). 이처럼 강하게 여호와의 영은 여러 차례 삼손에게 돌진해서 부딪치듯이 임한다(삿 14:6, 19; 15:14). 마치 삼손이 여러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쳤듯이, 여호와의 영은 강하고 힘차게 삼손에게 부딪치는 것이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평가한다면 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여호와의 영의 입재를 경험한 사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열기와 정욕으로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여러 문제들과 부딪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만들어낸 위험에서 스스로를 구하거나 복수를 일삼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주심이 반드시 사사 개인의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삼손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인 다곤 신전을 무너트리는 사건과 함께 사사로서의 삼손의 전반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웹과 블록은 삼손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실패한 사사로 평가한다.<sup>56)</sup> 스톤(Lawson G. Stone)은 심지어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했던 최고의 일은 바로 죽는 것이었다.”고 언급한다.<sup>57)</sup> 반면에 벨(Mieke Bal)은 삼손의 죽음을 그의 가장 위대한 성취(performance)로 평가하였다.<sup>58)</sup>

54)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173.

55) Lee R. Martin, “Power to Save!”, 44.

56)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Eugene: Wipf and Stock, 1987), 172; Daniel I. Block, *Judges, Ruth*, 471.

57) Lawson G. Stone, “Judges”, E. E. Carpenter and W. McCown, eds., *Asb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43.

58) Mieke Bal, *Lethal Love: Feminist Literary Reading of Biblical Love Stor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63. 건(David M. Gunn)도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여호와의 의도를 성취한 것으로 평가한다. David M. Gunn, “Samson of Sorrows: An Isaianic Gloss on Judges 13-16”, Danna N. Fewell, ed., *Reading between Texts: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247 참조.

## 6. 나가는 글

지금까지 옷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용된 다양한 히브리어 동사의 적절한 번역에 대해 논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글성경의 번역은 각 사사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의 임재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단어를 생략하고,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거나, 원문의 강한 어감을 완화시켜 표현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발견된다.

여호와의 영은 사사들에게 어떻게 임했으며 어떤 결과로 이끌었는가? 때로는 평범한 듯 왔지만 큰 능력이 임했고, 때로는 영으로 옷을 입혔고, 흔들었으며, 강하게 돌진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사사들에게 왔던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단순히 ‘임하였다’ 또는 ‘내렸다’로 번역한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습과 그 이후의 내러티브 전개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옷을 입혔지만, 스스로 그 옷을 벗고 금에붓을 입기를 원했던 기드온, 여호와의 영이 흔들면서 여러 곤경에 돌진하듯 부딪혔던 삼손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번역에 반영할 때, 사사기에 나타난 역동적인 여호와의 영의 임재 현상과 더불어 사사기의 다양한 문체 및 이야기 서술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제어> (Keywords)

문체론, 여호와의 영, 성령, 사사기, 사사.

Stylistics, The Spirit of Yahweh, Holy Spirit, The book of Judges, Judges.

(투고 일자: 2017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4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게제니우스,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희 역, 서울: 생명  
의 말씀사, 2007.
- 강사문,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에 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31  
(2012), 68-83.
- 강소라,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언: 구약 번역 관련”, 『성경원문연  
구』 31 (2012), 84-90.
- 김윤희, “대(大)사사 기드온은 과연 영웅인가(삿6-8장)”,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사사기, 룯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69-293.
-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룯기』, 성서주석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지찬, 『엔 샬롬 교향곡(상)』,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김진섭, “사사기에 나타난 성령님”,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사사기, 룯기 어  
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59-180.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 서울: 이엠, 2010.
-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55 (2015), 185-211.
- 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야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61 (2016), 137-166.
- Alter, Robert, “Samson without Folklore”, Susan Niditch, ed., *Text and  
Tradition: The Hebrew Bible and Folklore*, Atlanta: Scholars Press,  
1990, 47-73.
- Bal, Mieke, *Lethal Love: Feminist Literary Reading of Biblical Love Stor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Block, Daniel I.,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 & H Publishing, 1999.
- Boling, Robert G., *Judges*, Anchor Bible 6A, New York: Doubleday, 1974.
- Exum, J. Cheryl, “The Tragic Vision and Biblical Narrative: The Case of  
Jephthah”, J. Cheryl Exum, ed., *Signs and Wonders: Biblical Texts in  
Literary Focus*, Atlanta: Scholars Press, 1989, 59-83.
- Gunn, David M., “Samson of Sorrows: An Isaianic Gloss on Judges 13-16”,  
Danna N. Fewell, ed., *Reading Between Texts: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225-253.
- Habel, Norman,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AW* 77:3  
(1965), 297-305.
-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Hamlin, E. John, *At Risk in the Promised Lan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udges*,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0.

Levine, Baruch, *Numbers 1-20*,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3.

Marcus, David,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ch Press, 1986.

Martin, Lee R., "Power to Save!?: The Role of the Spirit of the Lord in the Book of Judges",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16 (2008), 21-50.

McCann, J. Clinton,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Olson, Dennis T., "The Book of Judges", Leander E. Keck, 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Numbers-Samuel*, Volume 2,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Schneider, Tammi J.,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Stone, Lawson G., "Judges", E. E. Carpenter and W. McCown, eds., *Asb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2.

Webb, Barry G.,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Eugene: Wipf and Stock, 1987.

Webb, Barry G., *The Book of Judg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2.

<Abstract>

**A Proposal on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Presence  
of the Spirit of Yahweh in the Book of Judges**

Il-Seung Chung  
(Asia LIFE University)

The period of the judges is portrayed as a desperate time calling for charismatic leaders. The stories of heroic characters, who received the Spirit of Yahweh in the book of Judges, provide various portraits of Israelite judges. The Spirit of Yahweh appears seven times in the book of Judges, and it came upon only four judges: Othniel (Jdg 3:10), Gideon (Jdg 6:34), Jephthah (Jdg 11:29), and Samson (Jdg 13:25; 14:6, 19; 15:14). The book of Judges uses different Hebrew verbs to describe the descent of the Spirit of Yahweh upon these judges, but most Korean Bible translations do not reflect stylistic variations in these passages. The major sections of this study discuss key passages referring to the Spirit of Yahweh in the book of Judges, investigate their stylistic difference, and suggest a new translation in order to feature the significance of רִיחַ in the leadership and experience of these charismatic judges. Upon occasion, the Spirit of Yahweh appears to come upon ordinarily but the Spirit had great influence. At times, the Spirit of Yahweh clothed, troubled, and rushed. Reviewing various nuances of different Hebrew verbs used to describe the Spirit of Yahweh in the book of Judges lead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tylistic variations in the narrative plot of Judges.